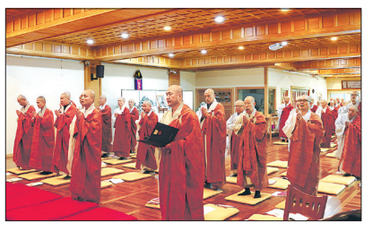
“선운사 중창원력, 수행정진 회향”

고창 선운사, 초대주지 남곡당 윤명 스님 추모재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는 7월 20일 선운사 초대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대선사 36주기 추모재와 불기 2563년 기해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봉행된 남곡당 윤명대선사 추모재에는 남곡 스님의 문손 재곤 · 재석 · 재정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원로스님들과 주지 경우 스님, 한주 범여 스님, 종회의원 태효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등 선운사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생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은 남곡문도를 대표해 “선운사가 교구본사로 승격돼 많은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스님의 원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은사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은 은사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남곡 스님은 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불교정화운동으로 격렬했던 비구대처 양설을 화합하는데 주력했으며, 총무원 재무부장,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를 소임을 맡아 선운사 천왕문과 대웅보전,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납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앞서 선운사는 불기 2563년 기해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포살법사로 진행된 법회는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중심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십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독송하고, 사부대중은 지계를 다짐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되새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야문화 함께하는 ‘산사 북 콘서트’

8월 17일 김해 은허사서… 조용헌 박사 강연도

가야문화의 중심지인 김해에서 지역민을 위해 한여름 밤 무더위를 식혀줄 북 콘서트가 열린다.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송산)은 8월 17일 오후 5시 30분 신어산 은하사에서 ‘가야문화와 함께하는 산사의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강연은 칼럼니스트 조용헌 박사가 진행한다. 조용헌 박사는 원광대 원불교학대학원 불교민속학 박사이며,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다. 저서로는 〈조용헌의 인생독법〉 외 27권이 있다.

그 외 음악 무대는 효강 스님, 김성기 교수, 이수정 성악가가 담당한다. 효강 스님은 불교음악 연구원 전문위원으로 현대적인 불교 음악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가야문화진흥원은 “무더운 여름 시민들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며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이자 깊이 있는 인문학 강의로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환경연대, 제2기 녹색아카데미

9월 21일~10월 26일, 환경 · 인문학 강좌 마련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능행)는 9월 21일~10월 26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울산 황룡사에서 제2기 울산불교환경연대 녹색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강좌는 △환경위기시대, 불교사상과 녹색불교(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쓰레기 문제와 자원재활용, 녹색사찰만들기(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소장) △지구온난화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까(송명섭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버드나무 방생, 숲을 지키고 생명을 살린다(이봉규 숲과함께 공동대표) △탈원전시대와 신재생에너지 사회(김익중 前동국대의과대학 교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울산의 환경의제(김태훈 UBS울산방송 PD) 등이 진행된다. 선착순 30명까지 접수하며 동참금은 10만원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마음으로 이해하는 교사 될게요!”

한마음과학원, 부산서 한나무인성교육연구회 연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아이들이 도와 달라고 찾아오면 도망가고 싶어요.”

학교 내 일어나는 많은 폭력 사건과 학부모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 그리고 학업 성취까지 교사들에겐 모든 것이 짐이다.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스승을 향한 참된 존중과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팽팽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연수가 마련됐다. 한마음과학원(운영위원장 혜찬)은 7월 22~26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교사의 행복 찾기-서로를 살리는 공생교실(이하 공생교실)’을 전국 유치원과 초 ·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생교실은 일반 연수 프로그램과 달리 10여 년 전부터 일선 교사들이 직접 ‘주인공 관법’을 학교에서 적용하고 활용해 성공한 사례를 모아 만든 프로그램이다. 연수과정에서는 마음에 관한 원리 교육뿐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화법까지 제시했다.

한나무인성교육연구회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기 위해 모임을 시작했는데 결론은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됐다”며 “교사가 너무 힘든 현실이다. 행복한 교사가 돼야 비로소 현장에서 마음의 힘을 활용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내 마음 들여다보기 △

‘교사 행복 찾기’ 주제로
7월 22~26일 3박4일간
심리전문가들 강의 펼쳐
“행복한 교실 위한 힐링”

내면을 향하여 △내 인생의 드라마-마음 찾기 △마음을 여는 대화 △마음의 원리로 접근하는 학생지도 △공생의 삶 △공감과 치유 △마음의 통신 등이며, 강사는 황수경 교수(동국대학교 명상심리학)와 박종래 교수(서울대) 등 10여 명이 참여해 전문화된 강의를 했다.

한나무인성교육연구회는 “학교현장에 문제들을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근본이자 뿌리인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으며, 학생, 학부모, 동료 간의 마음과 연결돼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다보면 다양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음과학원이 주최한 ‘교사의 행복 찾기-서로를 살리는 공생교실’에서 황수경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연수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일반 연수와는 달리 참된 나를 돌아보고 마음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종필 교사(중현초)는 “학교생활에 지쳐있다 보니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서 연수를 신청하게 됐다”며 “내면을 찾아가고 마음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순영 교사(부산혜성학교)는 “그동안 나 자신에 대해 미뤄뒀던 생각을 하게 됐다. 가족과의 이별도 있고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다”며 “힐링이 되고 편안해지고 마음을 돌아보는 연습을 통해 나를 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한 교사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도 이어졌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교사가 아이들과 공생하는 지혜를 터득해 가는 방법들이 연수 프로그램마다 녹아 들어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교육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학생들에게 베풀어 줄 에너지를 차곡차곡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수는 경기도 안산시 성안초교에서 ‘행복한 교실을 위한 쉼, 그리고 치유’라는 주제로 8월 5~9일 진행된다. 전국 유치원과 초 · 중등 교원을 비롯해 교육 전문직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31)470-3200

수산자비선원, 자비의 길 30년

무료급식 · 쉼터 제공 등
창원지역 복지활동 앞장
9월 중 기념법회 계획도

창원에 위치한 수산자비선원이 나눔과 복지의 길을 30년 동안 이어와 훈훈함을 남기고 있다. 주지 법상 스님은 오랜 시간 동안 나눔을 위해 함께 활동해 준 신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복지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경남 복지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수산자비선원 주지 법상 스님과 신도들의 모습. 수산자비선원은 지난 6월 30주년을 맞았다.

수산자비선원(주지 법상)이 30주년을 맞았다. 주지 법상 스님은 “기념법회를 9월 중에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복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상 스님은 창원 복지의 선구자로 불린다. 1989년 6월 개원 당시 현재 위치한 수산자비선원에서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고, 무료급식을 시작하며 복지의 길에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50여 명이 머물렀으며 현재도 10여 명이 무료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보금자리로 삼고 있다.

법상 스님은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복지가 열악했다”며 “아기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 찾아온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산자비선원은 창원에서 무료급식을 처음으로 진행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매주 월~토 점심공양을 무료로 제공해 250여 명이 선원을 찾는다.

무료급식을 시작으로 전문적인 복지활동을 위해 법인을 창단하고 의료생활협동조합 자비요양병원을 설립했으며, 어르신 요양시설인 자비마을과 양 · 한방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상 스님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노인의료복지뿐 아니라 스님들의 노후복지까지 책임지고 있다.

법상 스님은 “노스님들 가운데 임종이 다가오면 여전히 오갈 곳이 없어 힘든 시간을 맞을 때가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게 수행자로서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법상 스님은 특히 어르신을 위한 복지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스님은 “매년 불교인을 위한 단합대회를 열고, 어르신을 위한 경로 위안 잔치도 마련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참된 위로를 전하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복지의 길을 걸어가며 부처님의 자비 사상으로 포교의 삶을 살아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법상 스님은 지난 7월 1일 복지나눔의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불교평화대상 시상식서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종교복지 공로대상 및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